

[방위산업]

한화그룹, 호주 Austal 지분 인수 관련 Comment

이태환 taehwan.lee@daishin.com

2025. 03. 19

한화그룹, 호주 Austal Limited 지분 9.9% 인수 공시

- 한화그룹은 3/17 공시를 통해 호주 HAA No.1 PTY LTD(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) 지분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취득했음을 발표. 각각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42억원(6,980만주), 한화시스템 2,027억원(2억 2,020만주) 투자가 있었으며, 증자 후 지분율은 한화시스템 60%,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0%로, HAA No.1은 한화시스템으로 연결 편입되는 형태
- 3/18 추가 공시를 통해 HAA No.1은 호주 조선업체 Austal Limited의 지분 9.91%(4,120만주)를 1,687억원에 장외매수 형태로 취득 결정했음을 발표. 인수가격은 3/17 종가 3.83호주달러에 16% 프리미엄을 붙여 산정
- 향후 Austal 지분 9.9% 추가 인수를 위해 현지 호주 증권사 Jarden Partners와 TRS(Total Return Swap) 계약을 체결. 호주 상법상 해외투자자가 지분 10%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호주 FIRB(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)의 승인을 거쳐야하며, FIRB 승인을 획득 시 TRS를 지분으로 전환하여 19.9%까지 지분을 늘릴 예정
- 한화그룹은 '24년 Austal의 100% 인수를 위해 10억 호주달러를 제시했으나, Austal 이사회와 인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당국 승인 불확실성 제기, 실사 허용 조건 등에서 마찰이 발생하여 포기했던 바 있음. 따라서, FIRB 승인을 우선 획득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한 후 단계적 지분 확대를 택한 것으로 보임

한화가 Austal을 원하는 이유

- Austal은 1988년에 설립되어 서호주 Henderson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, 미국(앨라배마), 필리핀, 베트남 등에 조선소를 두고 있음. 호주-미국법인은 연안전투함(LCS), 고속수송함(T-EPF), 원양초계함(OPV) 등을 포함한 소형 함정 중심의 특수선을 건조·수리하며, 필리핀-베트남 법인은 상업용 페리와 군용 선박 하부구조물을 제작
- '24년 실적 기준 매출 비중은 미국 80%, 호주 20%로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함정의 신규건조 비중이 높으며, 영업이익은 원가상승, 투자비 증가 등으로 평년 대비 부진한 56.5백만AUD(흑전 yoy, OPM 3.8%)를 기록. 부채비율은 92% 수준
- 한화그룹은 한화오션 인수(2022년) 시점부터 전략적으로 특수선 분야를 강화하고 있으며, 최근 미국 군함 노후화 및 구조적 건조 능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. '23년 한화필리조선소(한화시스템 자회사) 인수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했으나, 미국 군함 건조 경력이 없어 라이선스 취득 및 노하우 획득이 필요했던 상황. Austal은 이미 미국 소형 함정 건조 및 서비스·정비 이력이 풍부하다는 측면에서 안정맞춤인 선택이었을 것

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분명히 보이는 가능성

- Austal 인수건이 FIRB 승인을 득할 경우, HAA No.1의 지분은 19.9%로 현재 Austal의 최대주주 Tattarang Ventures(17.1%)를 넘어서게 되며, 이사회 진입을 통해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임. 최대주주와의 거래 또는 추가 공개매수를 예상
- 한화가 Austal의 인수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호주 FIRB(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), 미국 CFUS(외국인투자위원회), 미국 DCSA(국방방첩안보국)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음. '24년 Austal 인수 시도 당시 AUKUS 동맹국이 아닌 한국에 매각하는 것을 문제 삼았던 사례가 있음
- 다만, 한국은 미국의 함정건조계획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아시아-태평양 지역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이며, AUKUS Pillar 2에 가입을 검토 중인 후보국(한국, 일본, 캐나다, 뉴질랜드)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. 물론, AUKUS Pillar 2에 해당하는 첨단 군사 기술 협력에 조선업이 포함되지는 않지만, 기존 대비 더 높은 군사동맹 관계로 발전할 여지가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국-호주 정부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. 더불어, 한화그룹은 이미 한화필리조선소(미국) 인수와 AS-21 생산기지(호주) 건설 등 양국과 적극적으로 경제 협력을 진행 중인 기업임이 고려될 것. Austal 인수에 성공할 시, 미국 해군 군함 현대화 사업에서 크게 앞서나갈 수 있을 전망

[Compliance Notice]

금융투자업규정 4-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

(담당자:김대신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